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닮은 점이 많다. 두사람 모두 불리한 초반 판세를 역전시켜 권좌에 올랐고 돌출발언이 잦다.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술한 설화에 휘말렸고 고이즈미 역시 "한국과 중국이 언제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외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 개혁의 압권이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참여정부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이 2만7천명, 정부 산하 기관 인력은 8만5천명이나 늘었다. 사상 최초로 연간 공무원 인건비가 20조원을 넘어선데다 장차관 수는 148명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다.

“가능한 민간에 맡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를 간판 슬로건으로 내세운 고이즈미는 정부산하 특수법인 16곳을 폐지했고 1부 22개 청이던 중앙 부처를 1부 12개 청으로 대폭 줄여, 총 생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남출신 중견 기업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어느 강연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도 인구의 마지막 선으로 불리던 200만명이 붐볐으나 전남도청 산하 공무원은 5년전에 비해 10%이상 증가했다.

정부 줄이고 시장 키워라

남출신 중견 기업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어느 강연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도 인구의 마지막 선으로 불리던 200만명이 붐볐으나 전남도청 산하 공무원은 5년전에 비해 10%이상 증가했다.

망한다니 가히 '물자마 공무원 시대'. 공무원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로 몰리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고이즈미 개혁 벤치마킹해야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객관적인 일본의 지력을 한국만 주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책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만큼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시설

정부, 침략근성 드러낸 日本 강력 대응해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발미로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하며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비롯한 외상·방위청 장관 등 일본 각료들이 미리 입을 맞춘 듯 있따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폭격론을 제기하고 있다.

락, 지배하면서 분단과 식민지배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런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 민족을 불바다로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은 과거 침략주의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감투싸움’에 개원조차 못한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감투싸움’으로 개인식까지 갖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11일 투표를 통해 제 5대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의장후보로 나선 강박원 의원과 나중천 의원측의 주장이 엇갈려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개원식마저 취소했다.

싸움을 벌여서야 되겠는가. 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함을 달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



차영호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순수예술 분야는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관극장으로는 공연의 활성화는 물론이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관극장과 공연예술

각을 바꿔야한다. 이문제의 해결책은 외국처럼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레퍼토리시스템' 극장을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적으로 남기기 위해 건립된 산물들이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큰일이 없는 한 평생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 취직 살리고 부작용 줄여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을 비롯한 주변 주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했다가 주변 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해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공공 기관에 주차하지 못한다고 인근에 주차하는 일은 요일제 본래 시행 취지에 맞지 않다.

독자마당

여성 직장인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갖춰졌으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아이는 "엄마, 오늘은 나 데려다 줄거야?"며 꼭 묻는다.

못했다. 아이 때문에 회사를 결근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는 부업으로 다니는 아줌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한 사람위해 공중전화 부스 전화부 훼손 안된다

얼마 전 시내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던데다 114안내를 받기에는 가지고 있는 동전이 부족해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렸는데 찾으려던 부분이 찢겨 나가고 없었다.

얻는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용자도 거의 없는데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번호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광주·전남에도 노인 위한 특수복 보급됐으면

친정 부모님과 시댁 모두 농사를 짓는 집안이다. 양가 내분 모두 연로하셔서 자식으로써 사실 늘 건강이 염려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항상 노심초사라 전화도 자주 드린다.

충청권부터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옷은 지리정보시스템(GPS)까지 갖추고 있어 입고 있으면 24시간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즉시 현장에서 구조팀이 달려갈수 있다는 것이다.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Advertisement for 'Gmni Design' (금니디자인) featuring a logo and text about design services and products.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